



이희철 사장

생산과 판매는 제과점 경영의 2대 요소이다. 이중 생산과 관련 질 높은 제품 제조를 위해선 기술인의 숙련된 솜씨가 주요 관건이지만 이에 못지 않게 제과 기계의 중요성도 크다.

또한 서비스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판매 부문도接客 서비스를 포함 판매가 이루어지는 곳이 매장인 만큼 좋은 제품과 함께 산뜻한 분위기를 연출해 고객에게 선사한다는 서비스 차원에서 인테리어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인테리어널 우주'는 제과점 경영의 커다란 2개 축인 생산과 판매 즉 제과 기계와 인테리어를 포함 점포 신규 개설 부문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주목을 끌고 있는 업체라 할 수 있다.

탄생으로 소비자는 필요한 양질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넓어지게 됐다.

또 애프터 서비스가 편화돼 있지 않던 당시 판매 제품에 대해 6개월 이내 발생된 하자를 책임짐으로써 대소비자 A/S 제공의 확대에 기여하기도 했다.

이후 인테리어널 우주는 1991년 중고 기계 사업부 발족, 1992년 영등포 신길동으로 우주산업 본사 이전 및 전시장 개장에 이어 1993년에는 경기도 광주에 쇼케이스 및 제과 제빵 기계 생산 공장을 가동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이 기간 중 우주산업은 대만 시찰 시 그곳에서 유행하던 벽면 쇼케이스의 공간 활용 유용성에 착안해 '긴꼬' 쇼케이스를 수입하는 한편 자체 생산으로 국내 벽면 쇼케이

## 인테리어널 우주

업체탐방

# 1등 향해 노력하는 2등 기업 표방

인테리어널 우주는

2등 기업임을 내세운다.

1등을 향해 더 노력하겠다는 의지에서이다.

제과기계 취급업체인 우주산업으로 시작해

인테리어 사업부 발족,

점포 신규 개설, 입지 및

상권, 점포 매물 알선 등을

담당할 신규 사업부 신설을 계기로

토탈서비스 업체로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인테리어널 우주 발족으로

인테리어 영역 확대

인테리어널 우주(대표 이희철)가 처음 선보인 것은 1989년 쇼케이스 및 제빵기계 판매 업체인 '우주산업'을 발족시키면서부터였다. 지금의 인테리어널 우주의 모태라 할 수 있는 이 우주산업 발족이 지니는 의미는 국내 최초의 제과 제빵 기계 종합 판매 회사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동안 제과 관련 기계 생산 업체는 개인이 소규모로 한두 품목을 생산해 판매하는데 그쳤으나 품목마다 우수 제품을 업체에 주문, 공급받아 위탁 판매하는 우주산업의

스 확산의 시발점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이렇듯 제과 제빵 기계 취급 업체로 출발한 인테리어널 우주는 1993년 10월 하나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는데 인테리어 사업부 신규 참여가 그것이며 지난해 10월 제과 제빵 기계 사업부와 인테리어 사업부를 통합, 인테리어널 우주로 상호를 바꾸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인테리어널 우주가 주력하고 있는 부문은 인테리어 사업부로 신규 진출한 부문이어서 의욕을 보이고 있다.

제과 기계 취급 업체로 출발해 조금은 의외라 할 수 있는 인테리어 참여에 대해 이희철 사장은 저렴한 비용과 제과점 현실에 맞는 인테리어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시작했다고 전한다.

또 업체야 이윤을 추구하는 특성을 부정할 수 없지만 이 사장 자신이 한국제과고등기술학교 1기 졸업생으로 무료 교육의 혜택을 받은 만큼 업계에 어떤 형태로든 보답해야 한다는 의식이 있고 오랜 기간 관련 업계와 인테리어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제과점 특성과 인테리어의 특성을 접목시키는데 그리 낮설지 않다는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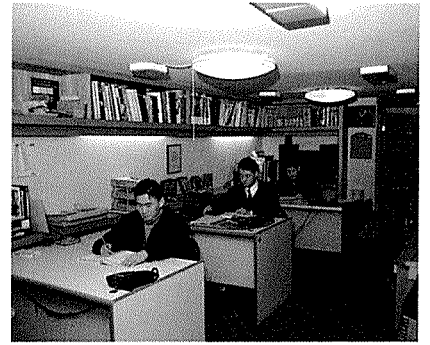




1



2



3

### 디스플레이와 제과점 특성 반영한 인테리어로 주목

이런 동기로 출발한 인터내셔널 우주는 1년 반이라는 짧은 기간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현재까지 시공한 점포만도 창원 뉴코아, 주재근베이커리 각 점포를 비롯해 하이몬드, 베르사이유, 피아노 등 30여개에 이르고 있다.

이런 성장이 가능했던 요인은 현장 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1일 1현장 고수 원칙을 통해 업주의 요구 사항을 즉석에서 시정하는 확실한 시공과 감리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시공 점포가 개보수 후 매출이 평균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까지 신장해 업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외에 인터내셔널 우주의 성가를 높이고 있는 것이 독특한 인테리어적 특성이다. 흔히 인터내셔널 우주 인테리어는 '예쁘다'란 평가를 받는다. 이 '예쁘다'란 함축적인 의미속에는 섬세하고 화려하며 더 나아가 언제 보아도 새로운 느낌을 준다는 요소가 내포돼 있다.

따라서 인테리어에서 중시하는 부분이 점포의 전체적인 칼라와 이미지, 다양한 소품 구성 등이다. 우선 시장 조사를 거쳐 시공에 들어가기 전 점포의 주위 환경을 고려하게 되는데 차이는 있지만 제과점의 주고객이 주부들인 만큼 아기자기한 요소에 친근감을 부여하기 위해 주부들이 좋아할 수 있는 칼라 구성에 주력하고 있다.

또 인테리어의 주제가 정해질 경

우 예를 들어 돌을 소재로 할 때 이와 어울리는 벽지와 도장, 조명 등 일관된 이미지를 유지하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3~4년이 지난 후에도 뒤떨어지지 않는 인테리어와 매장 분위기를 위해 첨단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이밖에 특히 소품 구성에 많은 주안점을 두는 것이 인터내셔널 우주의 남다른 점이다. 점포의 입구나 여유 공간을 활용, 예쁜 포장의 제과제품과 계절에 맞게 꽃 등을 장식해 철따라 교체 가능하도록 배려한 소품 구성으로 고객이 언제나 새로운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변화와 생동감 있는 매장을 구성하고 있다.

이런 특징적 요소에 인터내셔널 우주는 제과점의 특성을 고려한 시공 즉 일례로 공사가 어렵더라도 가능하면 천정을 높이고 옆 건물과 차단시켜 구성해 공기 순환에 따른 제품 부패 연장과 쥐의 침입 방지 등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하고 있다.

1. 매출 신장을 있게 한 인테리어의 비결은 철저한 시공과 감리, 꼼꼼한 설계가 밑받침이 된다.
2. 인터내셔널 우주의 인테리어는 예쁘다. 섬세하고 언제 보아도 새로운 느낌이 제과점 특성을 점목시킨 것이 특징이다.
3. 제과점 개설 상담 및 점포 입지 및 상권 조사, 매매 알선 등 신규사업 추가로 토털서비스체제를 구축했다.
4. 소품 구성을 통해 철마다 새로운 분위기 조성 및 생동감 있는 매장 연출을 보여주는 한 단면.



4

### 1등 향해 더 노력하는 2등 표방, 토털서비스체제 구축

인터내셔널 우주는 스스로 2등 기업임을 내세운다. 항상 2등이라는 마음 자세로 1등이 되기 위해 성실한 자세로 더 노력하겠다는 의의에서이다. 이런 차원에서 인터내셔널 우주는 올 3월 새로운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영역을 확대했다.

그동안 제과점을 시작하려는 사람이나 보다 좋은 상권으로 사업을 확대하려는 사람이 부딪치게 되는 정보 부족 해소를 위해 신규 사업부를 설치한 것이다.

이를 인터내셔널 우주는 오랜 영업 기간 축적된 전국적인 제과점 현황과 상권 지식을 토대로 신규 개설에 필요한 사항이나 점포 입지 선정 및 상권 조사, 점포 매물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큰 이익보다 서비스 차원에서 참여하는 이 신규 사업 역시 정보를 원하는 사람이게는 이익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동안 쌓아온 신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인터내셔널 우주의 계획이다.

이로써 인터내셔널 우주는 제과점에서의 생산과 직결된 기계 사업부와 판매 부분의 인테리어 사업부, 경영과 관련된 신규 사업부를 하나로 묶는 종합 체제를 갖추게 됐다. 이에 따라 아직은 시작 단계이지만 제과 관련 토털 서비스 업체로 2등이라는 자세로 1등을 향해 노력하고 있는 인터내셔널 우주의 행보가 기대와 관심을 끌고 있다.

(글 박종선) 